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시	의원명	질문 내용	답변자	비고
계	4명	6건		
9.24 (수) 10:00	성명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실태 및 개선에 대하여?	회계팀장	①
	조덕희	자원관리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 장	②
	유영화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미래경영 본 부 장	③
		주요민자유치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	④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하여?	“	⑤
	박성하	제1, 제2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 장	⑥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성 명 중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회계팀장 최 춘 일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실태 및 개선에 대하여 ?

질문요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및 정산근거는?
- 2007. 4. 1 ~ 2008. 4. 1까지 각종 건설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현황은?
-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과 대가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내용

투명한 회계질서와 바람직한 예산운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성명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및 정산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건설공사의 기본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

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라고 되어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08. 7. 7)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보험료 계상과 사후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의 경우 2006년 12월 29일 발주된 공사부터,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2007년 04월 0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그리고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추가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8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명시함으로써 보험료를 모두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려는 배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07. 4. 1 ~ 2008. 4. 1까지 각종 건설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간중 적용된 양대보험료 납부는 본청, 사업소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8,818천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15,287천원으로 납부현황이 14%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양대 보험료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여 준공검사전 사전 정산조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현황이 저조한 사유는 사업주들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금 및 건강공단에서 일용노무자의 경우 2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만 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은 이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금보험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으로 사업자 및 일용노무자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대 보험료 납부확인과 대가지급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시 계약상대자인 시공자가 준공서류에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이를 확인 검토후 미납 또는 적게 납부한 경우 당초 계상된 설계상의 보험료와 비교하여 감액조치후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에서는 발주처와 계약자 쌍방간의 보험료 정산합의서를 작성 날인하여 감액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변경되어 미납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대가를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시 원가계산서의 양대 보험료는 물론 이와 관련되어 적용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적용율에 의하여 감액정산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현장대리인 등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작업일지 및 근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납부된 경우도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공공사에 대한 정확한 예산운용과 사회보험료 계상 취지에 대하여 매년초 실시하는 「건설시공을 위한 건설관계자 교육」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자의 홍보 및 계도로 사업자의 인식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 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일탈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본 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조 덕 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자원관리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반입량과 가연성 쓰레기 소각비율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처리대책은? ○ 폭우시 쓰레기 매립장의 빗물 오수정화조 유입 방지 대책? ○ 자원관리센터 현장근무 인력의 위생 안전 대책은? 	
<p><u>답변내용</u></p> <p>□ 먼저 우리시 자원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 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 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먼저,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2007년 11월 1일 생활폐기물 매립을 시작으로 소각 및 음식물 처리시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금년 6월 30일에 준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의 용량결정은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일평균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기준 (2010년기준 140톤/일)의 40%범위내 규정을 적용하여 소각시설 규모를 일일 50톤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 가연성쓰레기는 2008년 4월 소각시설 가동개시 부터 8월말까지 8,795톤이 반입되었으며, 소각로 가동일 평균 47.3톤을 소각하여 8월말까지 6,383톤을 처리하였고, 반입량 대비 72.5%의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내 50톤급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규모 대비 전국 평균 가동율은 78.2%이며 우리시는 이 보다 앞선 94.6%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1 : 반입 및 소각처리량]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운영비 절감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각로의 연간 가동일수는 정기점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연간 목표가동 일수를 가동1~3년차에 대하여 3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 소각시설의 현재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연간 목표 가동 일수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목표가동 일수 추정 : $[(153\text{일}-20.3\text{일})/153\text{일}]\times 365\text{일}=316\text{일/년}$

○ 또한 표2의 소각로 미가동 현황과 같이 소각로 정기점검과 대형 불연성 폐기물의 반입에 따른 소각로 하부 소각재 배출구 막힘 현상 발생 등의 사유로 소각로를 일시 가동 중단된 사례는 있으나 중대한 기기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사례는 없었습니다.

[표2: 소각로 미가동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각로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입된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 좌우됨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폭우시 쓰레기 매립장의 빗물 오수정화조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침출수 처리장의 유량조정조 용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1,500㎥)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침출수 발생량을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기복토 완료된 매립장 일부분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금년 장마기간 중 2회에 걸쳐 매립장내 우수를 인근 가리천으로 방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방류수가 금번 가리천 오염의 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시 매립장 내 우수에 대하여 침출수 유량 조정조로 유입 저류 후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처리 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센터 현장근무 인력의 위생 안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센터내 소각·음식물 처리 근무인력은 24명이고(위탁 대행업체 소속·벽산엔지니어링) [표3: 안전(위생)관리계획표]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소각설비 등 위험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방열복,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최대한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복지에 더욱더 힘쓰도록 위탁운영자에게 권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1 : 생활쓰레기 반입 및 소각 처리량]

[단위 : ton]

구 분 \ 월 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반입량	17,279 (8,795)	2,984	2,886	2,612	2,311	1,553	1,523	1,653	1,755	소수점 첫자리 반올림
소각 처리량	6,383 (6,383)	-	-	-	1,229	1,139	1,292	1,491	1,162	
처리비(%)	36.9 (72.5)	-	-	-	53.1	73.3	84.8	90.1	66.2	

※ '08. 4월 소각로 가동이후 가연성 쓰레기량을 ()적색으로 내서하였음

[표2 :소각로 미가동 현황]

월 별	미가동 일수	사	유	비고
4월	2	대형 불연성 폐기물 혼입, 하부 소각재 배출구 막힘(1회)		
5월	7	분기별 점검		
6월	4	불연성 폐기물 혼입, 하부 소각재 배출구 막힘(2회)		
7월	0.3	폐기물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일시정지(8시간)		
8월	7	분기별 점검		
계	20.3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소각시설 연간 목표 가동일수>

구 분	목표 가동일수	비정기 보수기간	정기 보수기간
가동1~3년차	315일 이상	21일 이하	30일
4년차 이상	300일 이상	35일 이하	30일

[표3 : 안전(위생)관리 계획표]

과정	교육대상	내용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교육방법		
						강의	사범	시청각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전체기술자 및 직원	* 시설별 안전사항	2시간 이상/월	소장 안전관리자	현장	●		●
		* 계절별 안전사항						
		* 개정된 법규사항						
		* 사고시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						
		* 보호구 착용방법 등						
관리자 교육	관리감독자 자위에 있는 자	* 개정된 법규사항	8시간 이상/월	안전관리자 외부강사	본사 위탁 기관	●		●
		* 근로자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 작업안전 요령 및						
		안전교육방법						
		* 이상 발견시 조치사항						
신규 채용직원 교육	신규 채용자	* 현장개요 및 소개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	●	●	●
		* 보호구 착용방법						
		* 개인 신상 파악						
운전내용 변경시교육	해당자	* 변경된 작업내용 숙지 및 안전 작업 방법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	●	●	●
특별교육	해당자	* 공정별 위험요소 주지	2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	●	●	●
		* 신기술, 신장비 도입시 교육						
건강검진 실시	해당자	관내 병원에 의뢰	1회/년					

답 변 서

질문의원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 목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요지

-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은(용역진행상황, 입주예정기관 포함)
- 사업성 및 문제점은
- 향후 추진방향은(위치변경 검토 여부 등)

먼저, 전국의 기초지자체 의회를 순회 방문하시어 국회연수원 제천 유치활동을 전개해주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 본 조성사업은 200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 아래 충청북도와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MOU)」 체결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 200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1차 종합연수타운 투자유치설명회를 충청북도와 제천시 주관 하에 건교부, 주택공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습니다.
- 2008년 1월 25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천 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종합연수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통해 용역(용역비1억6천만원)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5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주요 용역 내용 -

- ▶ 연수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조사
- ▶ 공공기관종합연수시설 건립 및 운영 방안 등

- 또한, 2008년 4월 4일 충청북도의회 이종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며,
- 2008년 7월 14일에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12일 공포 하였으며, 현재 시행 규칙 제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제천종합연수타운과 연수원 유치를 위해 인원을 보강 국회연수원 유치 기능을 포함하는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연수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용역의 명칭은 『제천 연수타운 사업타당성 및 종합연수시설 건립·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며, 용역발주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이고 용역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용역기간은 2008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 이며, 용역비 1억 6천만원은 전액 주택공사가 부담했습니다.
- 지난 7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 일차적으로 9월 19 연구용역진에서 시민단체(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를 초청 하여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10월 15일 예정으로 용역 연구진이 제천시를 방문, 충청북도와 제천시, 제천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종합설명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10월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남시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종합연수타운 내 입주 예정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천종합연수타운 지구 내 입주예정인 연수기관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금년 내 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관하고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차 투자유치설명회를 금년 말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2~3개 연수기관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올인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이 향후 청사 이전 시 종합연수타운 지구 내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고
- 관내 학교법인 대제학원에서 연수타운 지구 내 특목고를 신설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어 본 용역에도 연수타운 지구 내 기관배치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 다음은 본 조성의 사업성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성입니다.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은 관련기관간의 협의과정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혀 새로운 개념의 교육연수타운을 건설 미래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공 모델사업으로 개념정리 해왔습니다.
- 따라서 교육, 연수, 휴양, 레저, 문화 등이 함께 융화된 종합연수타운(혁신도시)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글로벌 수준의 고급 인재양성의 요람에 기본 컨셉을 두고 있으며,
- 아직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어서 불확실성이 많은 것 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충청북도, 제천시 그리고 주택공사 등이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성의 구체적 실증 작업은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자료화되기 때문에 최종용역보고 시 함께 보고되리라 봅니다.

☞ 다음은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입니다.

- 제천종합연수타운은 2007년 10월 9일 MOU체결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단계인 사업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 착수하여 오는 10월 24일에 마무리 되겠으며,
- 앞으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 계획→토지보상→공사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실제 공사착공까지는 최소한 2~3년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 다만, 2004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유치, 2005년12월 26일 이후부터 2007년 7월까지 3개 공공기관 분산배치(개별이전) 관철을 위한 투쟁, 2007년 10월 9일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합의 등 수많은 일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가닥을 잡지 못한 점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갈 문제로 오직 의지와 노력만이 해결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종합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중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종합연수타운 건설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마련해야만 연수기관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집단입주방식이라는 특수성과 규모의 경제논리상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최근의 연수원 건립 성향과 연수원을 건립하고자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현장에 와보면,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청풍호반 주변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한계성을 극복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상과 대책이 조심스럽게 검토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현상과 문제를 종합화하여 1석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처방 대책을 마련 사안별로 한 가닥 한 가닥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 10월 중순경 연수타운 사업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 결과에 따라 정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향후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향이 정해 질 것입니다.
-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토지보상→공사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현 종합연수타운 부지는 지난 2007년 10월 1일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실무협의 결과』 합의사항이며,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 간 체결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MOU)』의 협약 내용으로 위치변경은 곧 제천종합연수타운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히 대책해야할 사안입니다.

- 다만, 앞에서 기본골격을 말씀드린 바대로 ① 본 사업 자체가 혁신도시의 연계선상이라는 점 ② 정부, 도, 우리시,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 ③정리한다면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사업계획 마련등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종합처방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 앞으로, 현재까지 제기되어온 사항들을 적극 참고하여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하겠지만, 종합연수타운 사업의 재검토나 장소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완료된 후 의회, 시민단체, 송광호 국회의원님, 충청북도, 정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유 영 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 종 섭
제 목	주요 민자유치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
<p>질문요지</p> <p>1. 제천시역 종합개발사업(웰빙휴양타운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은?</p>	
<p>답변내용</p> <p>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민자유치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u>유영화의원님께서</u> 질문하신 「주요 민자유치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구체적 답변에 앞서, 우리 시정에 있어서 민자유치투자사업의 소중성과 열악한 투자여건 그리고 함께 극복해야할 당면과제를 살펴보면,</p> <p>① 기본적으로 지역성장발전의 잣대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우량의 민자를 우리지역에 투자유치 하느냐와 타지역보다 비교우위의 양호한 투자여건을 조성하느냐가 우리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판단합니다.</p> <p>② 그럼에도 우리시는 지금까지 개축지구, 혁신도시, 종합연수타운유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 두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입지적 여건과 인근도시인 원주,충주보다 후위(원거리)에 있다는 불리함으로 인해 우리시민의 지속적이고 결집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치사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p>	

③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시가 장래에 생존과 특화발전
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천시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사회단체, 그리고
14만 시민모두가 총체적으로 합심하여 지혜를 모으고 철저하게 대
안을 강구해야만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유영화 의원님의 주요 민자유치사업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2007. 7. 10 건설교통부로부터 시행최초
로 지구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사업방식에 대한 수차의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7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하는 시
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
자로 결정고시한바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질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환경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개발계획 초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말 국토해양부에 고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의 주도적 역할
에 의해 민간투자자 모집과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
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정부의 “공기업 선
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토지공사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전략적 운영방
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정부의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의 발표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개발정책의 변화추세에 따라 민간기업들은 신규투자의 결정유보와 신중성으로 인해 토지공사에서는 선뜻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공모를 시행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사업등 기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소규모지방사업이나 신규투자는 자제하고 있어, 우리시 사업추진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시, 토공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병행하여 투자의향기업과는 투자유인과 정보교류를 계속하고, 아울러 정치적 지원요청등 다각적인 대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이 우리시에 어렵고 불리하게 조성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공 실무진에서는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개발계획 고시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편입예정지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도 1회 추경시 승인하여 주신 용역비 4천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이주민의 편의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계획 고시이후 토지공사 재원에 의한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요지

2. M캐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둘째, M캐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중 최대규모로 2006년 1월 투자제의 이후 2년여에 걸친 개발계획수립을 위시한 기본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월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는 등 호텔동 토공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1필지를 확보하게 되는 금년 11월말경 실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호텔동과 클럽하우스, 빌라동 등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평동리 일부주민에 의한 “시유림반환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며 원고측에서 상고하여 최종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중에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몇차례 직접 방문하고 양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동리 주민화합과 백운면민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캐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주)M캐슬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무엇보다도 “2010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개최 이전에 준공 목표로 회사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의 선도사업이고 성공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총연장 1.4km를 발주하여 계약중에 있으며, M캐슬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이해와 타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제천이 문화·관광·레저의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요지

3.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셋째, 금월봉, 계산관광지, 수산온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는 1998년 5월 29일 관광지로 지정 후 1998년 12월 14일 충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1999년 6월 26일 (주)금월봉을 민간사업자로 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고, 국비 21억원, 도비6억3천만원, 시비14억 7천만원의 공공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공기반시설 조성 및 민간투자를 통한 콘도조성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 상가조성이후 콘도공사는 일부 기반조성 공사 진행 중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업체와 P/F추진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2007년 3월 20일자로 민간사업자를 (주)금월봉에서 (주)미다스로 변경하였고, (주)미다스에서는 2008년 상반기 중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군인공제회 및 경남은행이 금융사로 참여하는 P/F를 추진하여, 거의 성사단계까지 접근하였으나 군인공제회에서 롯데건설에 금융지원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였고, 롯데건설에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그 후 2008년 8월 14일자로 수변콘도 예정지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을 위해 관광지 지구면적을 당초 88,119m²에서 92,514m²로 4,395m²(4.9%)를 증가시키고, 당초 총 25동184실의 객실 규모를 22동 262실로 78실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업성 확보를 통한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조성계획변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조성계획으로 현재 오리온그룹, 동양그룹, 두산그룹 건설사와 지난 2008년 7월부터 P/F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리온그룹 건설사 사장이 지난 8월 현지를 방문하는 등 현재 막바지 조율단계에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적 사례로 볼 때 이를 확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P/F와는 별도로 시행자인 (주)미다스에 대해 별장형 19동(공사비 100억원 정도)을 2008년 10월중으로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미다스와의 협약기간이 2007년 3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금년중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허가 취소 및 협약에 의한 정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산9-4번지 일대에 위치한 관광지로 비봉산 북서쪽 자락을 배경으로 하여 청풍호와 접하고 있으며 청풍호반과 비봉산을 활용한 전원 휴양형의 관광개발을 컨셉으로 하는 관광지입니다.

1998년 7월 24일자로 135,806㎡의 면적이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수차에 걸친 민자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만 5년만인 2003년 7월 24일 자로 (주)삼흥센추리와 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관광지 조성절차에 착수하여 2005년 1월 13일자로 관광펜션 40동 218실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충북도의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관광지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천시는 2005년 7월 12일자로 개발협약체결과 함께 2005년 7월 13일자로 (주)삼흥센추리를 민간사업시행자로 하는 민자 330억원이 투자되는 계산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였고, (주)삼흥센추리는 2006년 6월 20일자로 상호를 (주)부성원플러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시행자측의 사정으로 인해 2006년 11월 30일경 토목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10%의 공정에서 현장이 방치되게 되었으며, (주)부성원플러스가 소유한 토지 전체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집행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더이상 사업추진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제천시는 2008년 3월 11일자로 계산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고 협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협약파기로 인해 발생한 협약이행보증금 예치금 현금 1억원 및 이자 7백여만원을 포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2억5천만원 등 총 3억5천7백여만원을 2008년 3월 21일자로 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계산관광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계산관광지 전체부지 중 75.3%를 경락 받은 “(주)영신디엔씨”가 사업 참여를 희망해 왔고, 2008년 5월 9일 사업시행계획서 검토결과,

국내 소재 신용평가기관인 한국데이터(주)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영신디엔씨의 2007년 실적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등급이 BB+. A, 현금흐름등급이 C+(CR-3). CR-1로 중상위권의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였으며,

특히 1978년 설립 이래 30여년간을 동종업체에 종사한 전문건설업체로 자본금15.5억원, 2007년 기준 년 매출액337억원, 자산119억원, 부채 77억원 정규직원 63명 규모의 중소기업체로, P/F또는 자체자금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시 계산관광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6월 9일자로 당초 삼흥센츄리와 체결하였던 기존 협약내용 그대로 협약이행보증금은 단계별로 징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차 토목공사비 70억원에 대한 5%금액인 3억5천만원의 협약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한 후

2008년 6월 16일자로 총면적 135,806㎡중 영신디엔씨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동의서를 받지 못한 21,866㎡를 제외한 113,940㎡(84%)에 대한 사업시행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인 영신디엔씨로 하여금 시행허가후 잔여부지 21,866㎡에 대한 소유권 확보 또는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를 독려 중에 있으며, 본 작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중으로 확보 가능한 토지를 기준으로 관광지구 재확정 및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11월말 부지 중 관광지구내 관통 도로 아래 수변 쪽 부지에 대한 우선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및 관광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으로 전액 민자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나, 민간사업시행자인 영신디엔씨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P/F가 어려울 경우 자체 인력 및 자금을 동원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2009년 3월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관광지는 민자유치 지연으로 인해 2003년 이전 두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지정해제를 독촉 받은 지구였으나 관광지 해제시, 현재와 같은 위치에 관광지 재지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공격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다 사업추진이 지연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천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온천관광지는 제천시 수산면 내리 산30번지 일대 296,700m²의 면적에 278,259백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콘도미니엄, 상가, 한방온천장, 조경휴게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94년 10월 25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2002년 2월 25일 관광지 지정, 2006년 6월 9일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등을 거쳐, 2006년 11월 13일 (주)레전트를 민간사업시행자로 하는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하였고, 레전트는 2007년 경남은행을 금융사로 하고 GS건설을 시공사로하는 P/F를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성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우선 5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인 스파시설 및 온천장 건축허가를 2008년 5월 21일자로 받아 국내 유명 병원 등과 투자를 협의 중에 있으나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인 (주)레전트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해 2006년 7월 지구내 사유지 대부분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경남은행에서 차용한 70억원에 대한 상환이 2008년 현재까지 되지 않아 경남은행에서는 담보물 전체에 대한 일괄 경매를 검토 중에 있어, 2008년 12월까지의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주)레전트에 대하여 조속한 자금유치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토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경락자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제천온천 개발 컨셉은 소규모 온천장과 한방병원 등을 도입, 보양·치료온천으로 개발함으로써 제천이 지향하는 한방웰빙도시의 컨셉에 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민자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사업자의 자본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개발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향후 과감하게 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자 교체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월봉은 물론 제천온천 또한 2008년 12월까지 사업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허가 취소 또는 사업자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

4.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넷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정우택 지사님의 10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사업규모 330만㎡(110만평)에, 사업비 1조 8,000억원을 투자하여 중국어 교육시설, 문화, 종합위락, 숙박,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대단위 민자사업으로 청원군과 우리시가 사업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7. 4월 충북도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7. 6. 19일 충북도의 사업후보지 공모에 따라 우리시는 신월, 청전동 일대를 사업후보지로 신청하였고 우리시를 비롯한, 충주, 괴산, 증평, 청원 등 5개 지자체가 사업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이중 충주, 괴산, 증평은 여러 사유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청원군과 우리시가 후보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 2. 2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충북도의 투자설명회 개최시 우리시 사업후보지에 대한 설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청원군과의 차별성을 홍보하였으며

2008. 3. 28일 충북도에서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제천시 충북 차이나월드 투자유치단이 공모 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서류를 준비하였고

2008. 5. 26일 중국북경에서 중국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고 중국경제인의 투자를 장려한 바 있습니다.

2008. 7. 28일 충북도 공모기한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해 결국 우리시로서는 공모서류를 접수치 못하게 되었으며 청원군 역시 우리시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는 1차 공모에서 발견된 공모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행정사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북도에서 조만간 2차 공모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 컨소시엄인 제천시 차이나월드 유치단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2차 공모에 대비하고, 반드시 우리시로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민자유치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유 영 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미래경영본부장 윤 종 섭
제 목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p>○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현황 및 전략은?</p> <p>○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 접속방안은?</p>	
<p><u>답변내용</u></p> <p>유영화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먼저, 충청북도와 우리시가 공동 개최하는 엑스포행사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행사 기본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p> <p>○ 공식명칭은 『2010제천 국제한방Bio엑스포』 (영문표기 ; Wold Oriental Medicine-Bio EXPO in jecheon, Korea)이며, 위치는 왕암동 제2 바이오밸리부지 일대 33만 m² 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70억원이며, 주요행사는 전시, 학술, 교류, 체험, 이벤트, 휴식등 6개 분야로 추진되는 한방건강 분야 국내외 처음 개최하는 비즈니스 중심 종합엑스포입니다.</p>	

행사 개최시기는 2010. 9. 16 ~ 10. 5일까지로 BIE 권고사항을 이행 20일간개최하며, 최대 목표 관람객 수는 1,050천명(내국인 1,000+외국인5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시는 1,500억원의 경제적 직접효과와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간접적인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추진현황 및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까지 행사추진 경과와 조직위 사무국설치까지의 추진상황은

○2008. 2. 22일 한방바이오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득한 후 5.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행사 추진체계를 구축코자 총 69명의 인력으로 행사를 추진해나갈

조직위원회사무국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 2일 1차적으로 13명(도7,

시6)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사무국 사무총장은 도 균형발전국장이,

본부장은 바이오사업과장이 별도정원 승인 시까지 겸임 하고 있으며,

○지난 7. 22일 조직위사무국 개소식(사무실:청주시 흥덕구청 옆 건물 임대)

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조직위원회의 출범 시기는

2009년 초로 계획하고 조직위원장 및 위원인선(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2009년 국비예산 확보상황은

2009년도에 계획된 국비(균특회계) 30억원을 신청하여 행사비 예산으로 20억원을 승인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인프라시설 사업비로 대체 승인하여, 계획한 30억원의 국비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한 도비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 지금까지 행사준비 업무는

- 우리시 엑스포 지원단과 조직위사무국 직원간 업무발전 방향모색,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 홍보에 있어서는 읍면동단위 직능단체원을 대상으로 1차 순회 홍보설명회를 마쳤고, 각종 회의, 행사, 체육대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해외홍보활동으로는 중국 북경대학방문홍보 및 약업도시 안국시와의 우호협력 MOU체결, 필리핀 파세이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 홍콩 무역발전국 국제현대화 중의약 박람회 참석 홍보, 길림성 동북아 무역박람회 참석홍보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10월 중순에는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제6회 한.중 지방정부 공무원 교류회의에 참가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업무추진상황은 9. 9일 엑스포 E. I 공모를 통하여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주)매스씨앤지를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최종성과품을 납품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본 엑스포 성공의 초석이 될 실행계획 및 주관 대행사 선정은 9. 17일 제안요청 공고를 하였고, 9. 22일 제안요청에 대한 현장 설명에 국내 3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실행계획 및 주관대행사 선정 업무추진 일정은 11.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1.11일까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협상과 계약을 통해 2009년 3월초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출되어 본격적인 엑스포를 준비하게 됩니다.

[4] 다음은 본 엑스포를 위해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인프라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행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 할 제 2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2008. 2. 1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7. 4일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엑스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2009. 3월까지 기반시설사업인 도로, 상하수도사업을 착수하여 2010. 3월까지는 엑스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진입도로인 제천C ~ 제2바이오밸리까지의 도로는 43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2차선도로로 개설하고 엑스포장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하겠으며,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은 2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장 영구시설부지에 조성하는 한방생명과학관건립(건물 컨셉 ; 사람의 오장육부 이미지화)은 6,663㎡ 규모에 총300억원이 투자되는 BTL사업으로 지난 9. 8일 SPC사인 청풍한방마을(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0월 6일 기공식을 갖고 2010년 5월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과 전시공사가 진행됩니다.

○과학관부지내 약용허브식물 전시 체험 유리온실건립은 3,000㎡ 규모에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09년 군특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예정으로 2010년 3월까지 준공하고,

○세계발효식품을 전시 체험할 발효박물관건립은 2,000㎡ 규모에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9년 군특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예정으로 2010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엑스포유통단지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본 부지에는 농특산품판매장 (496㎡)과 약선 음식점(1,653㎡)을 건립계획으로 2009년도비를 확보하여 엑스포 행사에 차질 없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5] 엑스포행사 추진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방건강분야 세계 최초행사라는 행사성격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2010 제천 제한방Bio엑스포』 행사는 국내외의 여타 유사한 엑스포와 차별화는 물론 Only One 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엑스포 또는 유사한 축제들에서 보는 전시 판매 및 어느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이벤트 행사와는 차별화하여 『2010제천 국제한방Bio엑스포』는 어른 중심의 한방엑스포라는 한계를 극복토록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감성을 자극하는 행사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에서 노년층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행사 메인관인 한방생명과학관은 건물자체가 사람의 오장육부를 이미지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함은 물론, 영상물은 4D HD 영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3D영상관과 차별화할 계획이며, 발효박물관에는 발효한약, 발효음식, 발효주 등을 전시, 체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며 허브온실은 약초의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세계의 희귀 약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관람객에 대한 먹을거리 제공은 제천만의 특색을 갖춘 약선 음식 코너를 대중음식점과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한방음식 전문 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 약선 음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 산업전시 시설에는 한방중심 국내외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국내 약업계 대기업 특별관을 두어 전시 시설 중 특색화 방안을 도입하고, 국제관을 두어 국내업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국산 약업의 우수성과 각국의 약업발전을 비교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행사장내에 10,000㎡ 부지(38번국도와 인접)를 활용 공원박람회를 개최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기타 특수질환 치료시범, 체질감별, 음식궁합, 의료기기 체험, 세계 전통의학 체험코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타 엑스포와 차별화해 가겠습니다.
- 한편 국외전시 기업유치 및 국제학술대회 유치전략으로는 우선 중국 중의약업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유치 홍보에 주력하며, 특히 금년도 충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길림성 정부와 연계한 굴지의 중의약업체를 참여시키고, 약업도시인 안국시와 장수시와도 시정부차원에서 기업체를 선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기업관으로 별도의 공간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습니다.

○유럽지역과 미국, 캐나다등지에서 크게 발달한 대체의학 부문의 유치를 위하여 우선 대체의학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겠으며, 동서양 대체의학 체험코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관람객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각국대사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과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과 자매결연중인 모든 외국 도시까지 포함 유치대책을 하고, 관광업계를 이용한 한방의료관광객 유치, 한류관광객 유치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내국인 관람객중 초·중·고생 수학 여행단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 추석연휴와 징검다리 휴일이 연속되는 점을 적극 활용 「행사시작 1주일정도가 전체 행사의 성공열쇠라는 각오로」 가족단위의 1박 2일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주력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찾는 체류형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 다음은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 동력 접속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포와 지역산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우리화 하는 작업은 가장 소중한 현안과제며, 대단한 각오와 의지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육로중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인한 과거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번영이 퇴색되었고 석탄·시멘트산업 사양화에 따라 태백권 및 경북 북부권의 배후상업도시로서의 역할 퇴색으로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왜소화 현상 등 지역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 축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민선3기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과제 해결대책으로 한방산업을 선택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5년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에 따라 정부의 약초 웰빙 특구를 지정받고 『한방특화도시 제천』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사업으로 총 9개 부문 32과제에 4579억원을 투자하는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는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 32개 과제 중 WHO인정 건강도시사업과 함께 최종 마무리과제 사업으로써 한방산업을 지향하는 전국 20여개 자치단체간의 무한 경쟁속에서 엑스포를 통해 한방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고

○제2바이오밸리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한방산업도시와 에코세라피등 전문화된 의료관광도시로써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크게 앞당기는데 큰 뜻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일곱개 부문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도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2 바이오밸리는 엑스포 행사 후 제 1 바이오밸리의 100% 성공 분양을 계기로 한방 바이오관련 맞춤형 기업유치로 한방산업단지화 하여 한방관련 제약, 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산업 등 충북 첨단지식산업 벨트와 연계된 BT . IT의 특화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엑스포행사 필수 인프라사업인 한방생명과학관, 허브온실, 발효박물관 등 시설은 엑스포행사후에도 계속 고유의 기능을 수행 하면서 일정 주기의 미니엑스포개최와 한방 건강축제의 주 시설로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방건강도시로서 한방의 종합적인 이해와 건강 체험 관광코스가 되도록 운영 해 가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허준선생 동의보감이 완간된 1613년을 기점으로 정부차원의 400주년 기념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엑스포 3년뒤 정부행사가 엑스포장에서 개최되도록 또 다른 미래 과제를 설정 유치토록 하는 작업에도 전념해 보겠습니다.

둘째, 엑스포를 계기로 지역개발 촉진 및 한방 의료관광 도시의 블루오션 창출에 올인하겠습니다.

○에코세라피단지와 웰빙휴양타운의 민자개발 촉진, 명의촌조성, 세명대 한방병원, 기타 민간요양시설 등 의료서비스 산업과 연결하여 국내 최고의 한방 건강휴양 관광지로 차별화 해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관광트렌드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행태는 향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지역 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 및 보완하여 맞춤형 한방의료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한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엑스포를 계기로 도약기에 있는 제천한방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방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한약재 생산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사업으로 제천산 명품 GAP한약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해외 수출을 늘려가겠으며, 저가의 중국산 약재와의 경쟁 비교우위를 선점해 가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2009년도 10월 까지 준공하여 연간 2,000톤 규모의 한약재를 가공, 제조, 유통하는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한약재 물류도시로 입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 한방특화상품에 대하여는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품질검사를 전통의약산업센터를 통하여 제천한방 공동브랜드 『자연in』 인증마크사용을 승인하고 엄격한 관리로 제천산 한방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가겠습니다.

넷째, 한방의 산업화와 과학화를 통해 국가브랜드 구축은 물론 지역 한방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2003년도 정부에서는 한의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가최고 브랜드는 한방이라는 전략목표아래 각 부처별로 브랜드 구축화 작업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여건이 결국 우리시 한방산업 추진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바이오밸리 전통의약산업센터를 활용, 제천산 약초를 원료로 한 한방상품의 연구개발 품질인증과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 센터를 활용한 제1, 2바이오밸리 기업체의 기능성식품, 화장품, 한의약 제품에 대한 바이오테크 기술접목, 신산업융복합화 등 임상실험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건강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원재료 재배농가 및 기업의 매출을 증대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한방 연구개발사업(R&D)계획에 맞추어 우리시도 산학연 한방클러스터를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RIS, RIC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응모하여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탕재 중심의 약재는 잔류농약의 문제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최근 발효한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가 이끌어 가고 있는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정례화 하여 기술력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한방산업 벤처협회와 협력하여 주도적인 발효한약 개발을 적극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한방건강도시사업으로 WHO한방건강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WHO인정 국제한방건강도시 신청을 지난 8월 25일 신청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 내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세계인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의료수준 향상 사업 등에 금년도 하반기 가입목표로 총 7개 분야 35개 사업을 건강도시 과제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가치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허준 선생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차원의 국가시행 한방엑스포를 2013년에 개최하고자 용역 중에 있는바, 우리시는 2010엑스포 개최도시기반과 경험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반드시 정부한방엑스포를 유치하여 국제한방도시의 맥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웰빙시대에 맞춘 한방건강 약선 음식을 관광 상품화 하여
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건강중심 약선 음식도 결국
은 수요자(관광객)가 믿고 찾고 돈이 되는 상품화로 연계되
어야 할 것입니다.

○한방건강 약선 음식 개발을 통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지속화하고, 연구의 활성화와 한방관련음식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전문 업소의 기준 마련 등 시책을 추진하고 성별,
연령별, 체질별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한방치료 관광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한방의 산업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건강중심 클러스터로써 지속적 성장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원주의료기기, 창원기계,
오창과학산업 등 전국 12개의 시범 산업클러스터를 선정하여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2바이오밸리가 준공되어
한방바이오관련 기업이 입주하면 우리시도 정부 시범산업클러스터에
도전하여 늦어도 2013년까지는 선정되도록하여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한방관련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최첨단 원료추출방식인 초임계 공법도입을 위한 초임계 추출설비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첨단바이오제품, 기능성제품, 의약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한방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전국한방도시협력회와 협조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해 한의사전문의제도, 한방건강보험 확대, 양한방협진제도를 정책해 나가고 특히 서양에서는 보완 대체의학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함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생명산업진흥법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진행하고 있어 본 제도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야심 찬 한방도시 육성계획과 엑스포행사에 그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듯이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	성명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시장
제 목	제1,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입주업체,가동 및 공장건립 추진 현황은? 2. 제1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사업체별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효과는? 3.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추진개요,공정,향후 계획 포함) 4.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방안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은? 	
<p><u>답변내용</u></p> <p>시장 임태영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입주업체, 가동 및 공장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 2008년 8월 31일 현재 바이오밸리의 입주업체는 총48개이며, 가동 24개, 건축 중 6개, 설계 중 10개입니다.</p> <p>최근 경남제약/화성바이오팜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건설 준비 중에 있으며, 고용예상인원은 400명, 투자액은 45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장착공을 독려하고, 현 경제사정으로 인한 착공 연기나 착공 의사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포기 유도 및 대체입주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제1지방산업단지(바이오밸리)사업체별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바이오밸리 가동업체 24개의 직접고용규모는 930명이며, 지역고용인원은 620명으로 총 고용규모 대비 약 66%정도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일진글로벌이 총인원 350명 중 25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하였으며,
 - 현재 건축중인 보람제약, 휴온스, 화성바이오팜(경남제약)의 공장이 준공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약회사 특성상 설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상기 3개업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업체 준공시기가 대부분 2009년 혹은 201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체감지수와 이격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효과가 큰 대규모 제조업체 중심으로 유치하되, 1차 벤더기업까지 유입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3.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개요 및 공정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2산업단지조성 목적은 제1바이오밸리의 분양 완료와 함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대비하고 신규산업단지조성을 통한 유망한 기업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로 미래성장동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추진개요로는 조성되는 위치가 제천시 왕암동 및 봉양읍 명드리 일원이며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면적은 129만9천255 평방미터로 총 투자비는 국비 342억원,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가 1,154억원을 투입하며, 시비15억원을 포함하여 1,511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공정은 2007년 2월 2일 충청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 등 보상가를 얼마무리 한 후 2008년 2월 1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4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벌목작업과 진입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 3월까지의 한방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 9월 한방엑스포 개최 후 2010년 12월 제2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4.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방안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Marketing)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둘째, 소규모 설명회 및 유치대상기업 미팅을 통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있으며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9월 30일(화)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선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순회 기업이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충청북도 주최, 제천시/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하여 수도권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30여 개의 업체 대표를 모시고 제2지방산업단지의 선분양 유치 활동을 펼 예정입니다.

셋째,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심의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주요산업의 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대상 기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50년 비전인 「저탄소 녹색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녹색성장의 첫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은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처리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은 우리의 청정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태양광설비업체, 연료전지, 풍력설비업체 등 고용효과와 청정환경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을 조사, 유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충주첨단산업단지가 평당 39만원 정도이며, 주변 경쟁 산업단지 역시 이정도이나, 제2산단은 평당35~4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 할 때 제천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경쟁력 있는 분양가 책정에 만전을 다하고, 이미 협의 요청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둘째, 제2산단의 조성기간 단축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조속한 조성완료야 말로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당초 제2산단의 조성완료가 2010년 12월로 예정 되어 있으나, 공장이전 희망기업체의 착공시기를 2009년 5월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이전 희망기업이 원하는 적기에 이전 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및 맞춤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조성과 기업인 예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기업인 예우 환경 조성의 실례로
“1사 1공무원 나이스 멘토링제”와 같은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 및 현 어려
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보다 많이 개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성공적인 한방엑스포개최와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박성하의원님이 질의
하신 제1,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